

수 신 : KLPGA 회장 직무대행 변호사 김대식님

제 목 : KLPGA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2011. 8. .

KLPGA 구 욕 회
강 춘 자
이 기 화
송 이 라

KLPGA 회장집무대행 김대식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KLPGA 집행부 구옥희, 강춘자, 이기화, 송이라 등 임원진입니다.

김 변호사님께 저희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들은 KLPGA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바로 세우고 정상적인 KLPGA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저희 임원진들의 진심에 대한 김 변호사님의 협조와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2. 저희 전 집행부는 KLPGA가 조속히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를 소집,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집행부를 선출하여 대내외적으로 합법적이고 건실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저희들은 그간의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는 KLPGA로 발전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저희들이 몸담아 성심성의껏 열심히 이뤄왔던 일들이 모두 흐트러져버린 지금의 사태가 매우 걱정스럽고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4. 부디 저희들의 바람과 한국 여자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더 이상 누가 되는 일이 없이 저희 KLPGA가 조속히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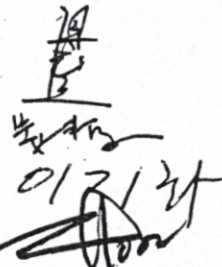
2011. 8. 10

구 옥 희

강 춘 자

이 기 화

송 이 라



조정에 대한 의견서

I. 신청인의 기본적인 입장

1. 개요

우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한국여자골프협회(이하 KLPGA라 합니다)의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주신 대행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요청하신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에 임하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 집행부 선출의 무효

우선 2011. 4. 7.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의 선출(회장 구옥희, 수석부회장 강춘자, 부회장 이기화, 전무이사 송이라, 이사 한소영, 구영희, 이영귀. 이하 이들 7명을 통틀어 '현 집행부'라고 하겠습니다)은 법원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서에 나와 있듯이 KLPGA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구옥희 프로가 회장 자격에서 선임한 이애재, 박형명 사외이사 또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KLPGA의 현재 임원은 현 집행부 7명과 이애재, 박형명 사외이사 외에도 김소영, 원재숙, 이정화, 신은영, 지유진, 손민지 이사, 박인구, 차석용, 김정완, 조정호 사외이사, 이지선, 권선아 감사 등 총 21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현 집행부는 부적법하게 회장선

출을 강행하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들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협회의 정상화』 일 것인데, 협회가 정상화가 되려면 협회를 파행으로 이끈 사람들이 결자해지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 집행부 구성원은 새로운 집행부 선출시 후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둡니다.

3. 이사회 구성의 원상 복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2011. 4. 7.자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출이 무효임이 선언된 이상 KLPGA의 대표 임원은 2011. 4. 7.자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4. 이사회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의 신청인의 조치

만약 이사회가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2011. 4. 7.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2011. 4. 7.자로 선출되었으나 아직 직무집행정지되지 아니한 구영희, 이영귀 이사와 구옥희가 회장 자격에서 선임한 이애재, 박형명 사외이사에 대하여 추가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들과 함께 이번 신청사건에서 직무집행은 정지되었으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강춘자 수석부회장, 이기화 부회장, 송이라 전무이사, 한소영 이사 등 모두 총 8명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여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겠습니다.

5. 새 집행부의 보선

다음으로 신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KLPGA 정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092 결정에 따르면, 구옥회 회장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므로 '전임자'라고 볼 수 없어 그 이전 회장인 선종구 전 회장의 임기(2012년 정기대의원 총회)까지를 신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선종구 회장이 스스로 사퇴한 이상 이는 결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선종구 회장 자신도 전임 홍석규 회장의 사퇴로 잔여임기 동안 보선되었습니다).

6. 새로운 총회에 의한 회장 선출의 문제점

한편, 회장직무대행자께서 새로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절차는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장직무대행자는 민법 제60조의 2에 따라 협회의 사무 중 통상 사무에 속하는 사무밖에 대행할 수 없는데,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이나 대의원 총회 소집은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께서 재판부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신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7. 구옥회 회장 등의 공식 사과

마지막으로 구옥회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일련의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부적법하게 강행된 총회에서 그동안 협회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사외이사분들이 내쫓기듯


해임되었습니다. 대회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선수들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현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와 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이하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II. 신청인 측 조정안

1. 신임 회장은 2011. 4. 7. 자 임시총회 이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잔여임기는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2. 구옥희 등 현 집행부 구성원 전원은 이번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에 있어 후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현 집행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한다.

2011. 8. 19.

신청인 김 미 

김대식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 직무대행자 귀하